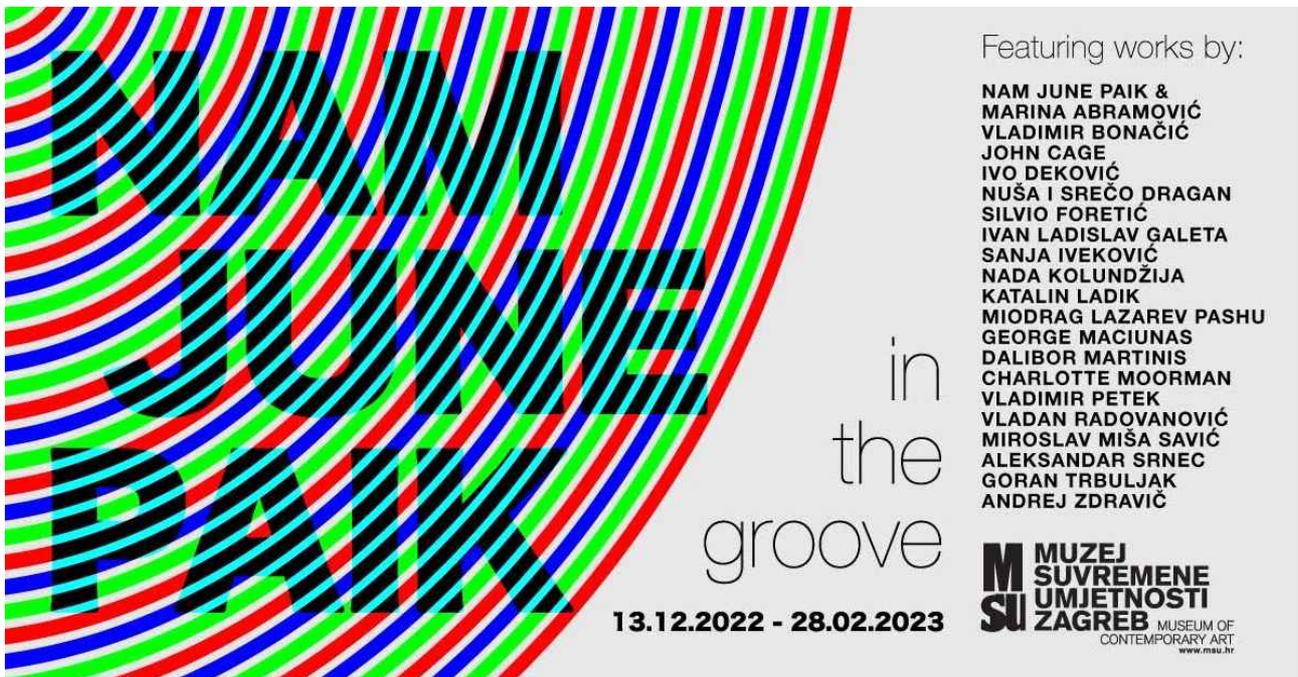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자그레브 현대미술관 협력 전시 《백남준의 그루브》 <i>Nam June Paik - In the Groove</i>	
문의	전시: 이수영 학예연구사 t.031-201-8596 m.010-4288-2713 취재: 배진선 학예연구사 t.031-201-8541 m.010-4027-6437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2. 12. 12.	쪽수 총 7매

백남준아트센터, 자그레브 현대미술관 협력 전시
《백남준의 그루브》
Nam June Paik - In the Groove



- ▶ 백남준아트센터와 자그레브 현대미술관과의 공동 기획으로 《백남준의 그루브》 *Nam June Paik - In the Groove*를 크로아티아 현지에서 개최
- ▶ 백남준의 예술적 가치를 서구 현대미술에 국한하지 않고 전 지구적이며 하이브리드적인 것으로 해석
- ▶ 백남준의 영향을 받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의 미디어 작가들의 작업을 함께 전시하여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확장

■ 전시개요

전 시 명 : 《백남준의 그루브》 *Nam June Paik - In the Groove*

전시기간 : 2022. 12. 13 ~ 2023. 2. 28

전시장소 :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현대미술관

기 획 : 이수영(백남준아트센터), 올가 마이첸린, 마르티나 무니브라나(자그레브 현대미술관),
단 오키(미디어 작가)

참여작가 : 백남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블라디미르 보나치츠, 존 케이지, 이보 데코비치,
누사/스레초 드라간, 실비오 포레티치, 이반 라디슬라브 갈레타, 산야 이베코비치,
나다 콜룬즈야, 카탈린, 라딕, 미오드라그 라자레프 파스후, 조지 머추너스,
달리보르 바르디니스, 샬롯 무어먼, 블라디미르 페텍, 블라단 마사 사비치,
알렉산다르 스프네츠, 고란 트르블락, 안드레이 즈라비치

주최주관 : 백남준아트센터, 자그레브 현대미술관

후 원 :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

협 력 : 크로아티아 문화부, 자그레브 관광청, 스플릿 대학교 다문화 및 한국학 연구 센터

■ 전시소개

《백남준의 그루브》 *Nam June Paik - In the Groove*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김성은)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전시 《백남준의 그루브 *Nam June Paik - In the Groove*》가 12월 13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다. 백남준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자그레브 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백남준의 그루브》는 백남준의 예술적 가치를 서구 현대미술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 지구적이며 하이브리드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백남준의 그루브》는 백남준의 예술을 크로아티아에 본격적으로 소개할 뿐 아니라 백남준의 영향을 받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로 연결되는 예술가들의 작업을 병행적으로 연결하여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 전시에 백남준아트센터는 <TV 부처>, <달은 가장 오래된 TV>와 같은 주요한 비디오 조각과 비디오 <굿모닝 미스터 오웰 파리 라이브> 등의 작품을 출품하여 전시를 함께 구성하였다.

TV와 인터넷의 영향만큼이나 획기적이었던 백남준의 멀티미디어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졌다. 이 전시는 백남준의 "그루브"가 담고 있는 신호, 평행선 및 반향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미디어 작가들과 공명하고 교차시키고자 한다. 《백남준의 그루브》는 때로는 영리하

고 때로는 유쾌한 미디어 아트 선구자, 백남준의 초기 실험과 예술 실천을 선보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백남준의 예술적 가치는 대부분 모더니즘과 미술사라는 서양의 렌즈를 통해 해석되지만, 백남준은 진정한 국제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과 일본에서의 음악 교육에서부터 유럽과 미국에서의 미술 경력에 이르기까지 백남준은 예술 활동에 글로벌하고 하이브리드적인 관점을 도입했으며 아시아와 서구 세계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자그레브 현대미술관에서 백남준의 작품과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크로아티아 관객들에게 백남준에 대해 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예술가들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드러낼 것이다. 전시는 백남준의 작품 세계와 미디어 작가들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매체 신호(media signal)', 'TV 禪'(Zen for TV), '소리의 해체 (Sound deconstruction)', '플럭서스(Fluxus)', '초기 비디오 실험(Early Video Experiments)', '직접적인 연관성(Direct Connections)'이라는 주제 아래 구성된다.

누구보다 치열하고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백남준의 예술적 실천은 현대예술에 있어서 혁명적인 영향력을 가져왔다. 그의 선구적인 작업은 전자 통신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 세계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바탕으로 비디오 및 뉴미디어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을 정의 내렸다. 백남준은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기술 및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를 생각하고 표현하고자 했던 예술가다. 방송사의 독점에 대항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네트워크로서 '전자초고속도로'를 주장했던 백남준은 모든 사람이 비디오를 손에 들게 되며 도래할 예술과 사회 모두에 대한 혁명적 의미를 예견한 예술가로 평가받을 것이다.

■ 자그레브 현대미술관

자그레브 현대미술관은 모든 형식의 동시대 미술을 창작, 전시, 연구, 보존하는 장소이다. 전시와 소장품의 전문적·혁신적·교육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관람객들이 동시대 미술을 이해하며 미술관에서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그레브 현대미술관은 멀티 프로그램 기관으로서 과거의 유산과 동시대 현장을 연결하며, 시각 및 공연, 영화 예술에 아우르는 활동적이고 비평적인 공동체를 구성한다. 큐레이터와 이론가, 예술가 등 다양한 창작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실험연구부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학술 문헌, 사진과 비디오, 신문 자료 등 크로아티아의 동시대 미술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와 도서관을 운영한다.

■ 주요 작품 소개

1)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1965(2000))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1965(2000)

CRT TV 모니터 13 대, 12-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LD; 〈E-Moon〉, 1-채널 비디오, 컬러, 유성, DVD, 가변크기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Nam June Paik Estate

비디오를 통해 시간을 공간적으로 재조합하기를 즐겼던 백남준은 이 작품에서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빛의 원천 중 하나인 달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여준다.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달의 주기가 12대의 텔레비전으로 형상화되는데, 1965년 뉴욕 갤러리아 보니노에서 처음 선보일 당시에는 초기 진공관 텔레비전을 사용하였다. 백남준은 진공관 끝에 자석을 고정해 내부 회로의 전자기적 신호를 방해하고 그 신호만으로 텔레비전 화면에 마치 달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도록 한 것이다. 관람자는 시간의 길이와 깊이, 순간성과 영원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작품의 제목은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 지구의 유일한 위성인 달을 바라보며 이미지를 투영하고 이야기를 상상하던 모습을 텔레비전 시청에 빗댄 것이라 할 수 있다. 백남준은 1976년부터 이 작품을 12대의 텔레비전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백남준아트센터가 소장한 〈달은 가장 오래된 TV〉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12개의 달에 〈E-Moon〉(1999)이라는 영상이 추가되어 13대의 모니터로 구성된 것으로 2000년 구겐하임 미술관 회고전 《백남준의 세계》에서 처음 선보였던 버전이다.

2) 백남준, 〈굿모닝 미스터 오웰 파리 라이브〉 (1984)



백남준, 〈굿모닝 미스터 오웰 파리 라이브〉 (1984). 현장 스틸.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 소장. ©Nam June Paik Estate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빅브라더가 텔레비전을 통해 지식과 권력을 집중화시키는 전체주의 사회가 올 것으로 예언한 데에 반하여, 백남준은 뉴욕과 파리를 실시간으로 연결시키는 인공위성 프로젝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여 상호소통의 예술매체로서 텔레비전이 지닌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뉴욕의 WNET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 열렸던 존 케이지, 머스 커닝햄이나 샬럿 무어먼 같은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공연과 파리의 풍피두 센터에서 진행되었던 요셉 보이스와 어반 삭스 등의 공연이 교차되거나 한 화면 안에 공존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었다. 80년대 당시 위성은 냉전의 산물이자, 엄청난 국가적 자본을 투입한 하이테크놀로지의 결정체였다. 이러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몇몇 메이저 방송국과 나사(NASA) 정도였다. 그러나 백남준은 이러한 위성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륙 간,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생각했다.

3) 백남준, 〈TV 부처〉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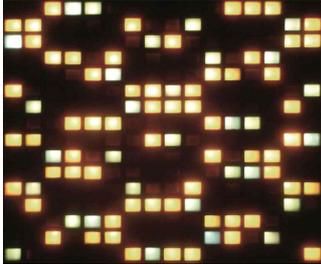


백남준, 〈TV 부처〉 (1974)

석불좌상 1 기, CRT TV 모니터 1 대, 폐쇄회로 카메라 1 대, 가변크기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Nam June Paik E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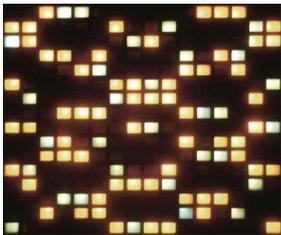
백남준의 〈TV 부처〉는 불상과 TV 모니터가 마주보고 있는 형식으로, 모니터 뒤편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가 불상을 실시간으로 찍은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처는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는 구도가 된다. 사용된 불상과 모니터, 주변 배치가 저마다 다른 여러 가지 버전이 제작되었는데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은 석조 좌상과 14인치 모니터가 흰색의 좌대 위에 놓인다. 종교적 구도자이며 동양적 지혜의 상징인 부처와 현대문명의 상징이자 대중매체인 텔레비전의 대비,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시즘과 선불교의 명상을 전자적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주제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백남준은 실재하는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실시간 영상 이미지가 계속 순환하는 구조에서 현실과 재현의 관계, 동시에 보이는 둘 사이에 발생하는 미세한 입출력 시간차에 주목하며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매개적 성격을 탐구하였다. 1974년 쾰른미술관에서 열린 퍼포먼스에서는 백남준이 법의를 걸치고 TV 모니터 앞 부처상 자리에 직접 앉기도 하였다.

4)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파이브 사운드 엠비언스〉 (1974)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파이브 사운드 엠비언스〉 (1974)
엘리먼트 설치
자그레브 현대미술관 소장.

5) 블라디미르 보나치츠, 〈DIN GF. 100 - 14. V. B. 1969.〉 (1969)



블라디미르 보나치츠, 〈DIN GF. 100 - 14. V. B. 1969.〉 (1969)
다이내믹 오브제
자그레브 현대미술관 소장.

6) 산야 이베코비치, 〈레스닉〉 (1994)



산야 이베코비치, 〈레스닉〉 (1994)
식물들과 비디오 설치, 11' 24"
자그레브 현대미술관 소장.